

○委員長 劉大運 수고하셨습니다.

두 분 소개의원님의 의견청취, 또 각각 다른 두 분 청원인 대표의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만 첨예한 대립인 것 같습니다. 문제는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敎育廳의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합니다만, 어떻게 할까요, 위원 여러분? 본 문제가 오늘 敎育廳 관계자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해결되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, 지금 한 건 같은 경우에는 검토보고서 준비도 못했습니다,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. 먼저 들어온 청원은 검토보고서를 해 놓았습니다.

그래서 사실 먼저 들어온 검토보고에 나중에 청원이 된 내용까지 같이 부합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. 그래서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.

專門委員은 우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專門委員 金宗植 金宗植 專門委員입니다.

동양공고 이전계획 철회 및 인문계고등학교 설립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(報告)

동양공고이전계획철회및인문계고등학교설립요구에관한청원
검 토 보 고 서

1. 청원경위

본 청원은 1997년 3월 21일 盧永奭議員의 소개로 남경임 외 2,51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청원요지

○청원인들은 강서구 가양동 한강, 대아, 동신 등의 아파트단지 주민들로서 동 단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양 택지개발지구로 조성 3,814세대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인구가 급증한 지역으로 '98년부터 가양1·2·3동 및 등촌3동에 위치한 성재중학교 등 신설 5개 중학교에서 매년 2,670명의 중학교 졸업생이 배출될 예정이나, 동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전무하여 인문계 고교의 유치가 절실한 실정임.

○인근 200m 자리에 영등포 공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

강서구 가양1동 46-2에 또 동양공고 이전을 인가해 주어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바, 이는 이 지역의 매년 1,350명으로 추정되는 인문계 고교 지망생의 근거리 배정원칙에도 어긋나며 원거리 통학불편과 교통혼잡을 가중시킴.

6. 검토의견

□동 청원의 배경과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,

○먼저 동양공업고등학교를 이전코자하는 배경은 학교법인인 동양학원이 운영하는 구로구 고척동소재 동양공업전문대학과 동양공업고등학교가 동일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교지가 협소하여 각종 학내 행사시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시설노후로 교육여건의 개선이 필요하여 현 교지는 동양공업전문대학을 증·개축하여 발전시키고 동양공업고등학교를 동양공업전문대학으로부터 분리 시키고자 서울시교육청에 이전승인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여 문제가 된 학교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.

그로 인하여 강서구 가양동 일대 주민 남경임 외 2,515명의 주민이 동양공업고등학교 이전계획철회 및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요구에 관한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.

○동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청원인들은 강서구 가양동 한강, 대아, 동신 등의 아파트단지 주민들로서 동 단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양 택지개발지구로 조성 3,814세대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인구가 급증한 지역으로 '98년부터 가양1·2·3동 및 등촌3동에 위치한 성재중학교 등 신설 5개 중학교에서 매년 2,670명의 중학교 졸업생이 배출될 예정이나 동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1,350명 정도가 원거리에 배정이 될 경우 통학하는 불편과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,

또한 주민이 그토록 바라는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는 외면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비밀리에 기존 영등포공고에서 불과 200m 거리에 또 공고를 유치함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근거리 배

<p>정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.</p> <p>또한 실업계 고등학교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 라이벌의식으로 학교 폭력의 유발요인이 되므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은 물론 자라나는 새싹들의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교육정책이라 판단되어 동양공업고등학교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동 부지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입니다.</p> <p>□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동양공업고등학교의 이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/p> <p>○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동양공업고등학교의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그곳에 인문계 고등학교의 설립을 요구하는 것은</p> <p>첫째, 동양공업고등학교 이전에 정지와 약 200m 떨어진 곳에 영등포공업고등학교가 있어 실업계 고등학교의 균형배치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며 특히 가양1·2·3동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.</p> <p>둘째, 가양지구의 계속적인 개발로 '98학년부터 매년 2,670여 명에 이르는 중학생이 졸업하여 그 중 50%만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한다 하더라도 약 1,350여 명이 타지역으로 배정된다고 할 때 인문계 고등학교의 설립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.</p> <p>셋째,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동양공업고등학교의 이전을 결정한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근거리 배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.</p> <p>○따라서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녀를 가진 주민이라면 누구나 청원이 관철되기를 바랄 것입니다.</p> <p>학교란 학교라는 건물이 있어야 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야 하며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있어야만 진정한 학교로서 운영이 된다고 볼 때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보호자인 학부모들의 의견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.</p> <p>물론 동양공업고등학교의 이전 승인이 제법령에 의하여 이뤄졌다고는 하나 실업계 고등학교의 균형배치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었던 것은 아쉬움이 있다할</p>	<p>것입니다.</p> <p>○한편 학교법인인 동양공업고등학교에서는 하자없는 행정행위로 인하여 교지를 매입하였고 기타 부대조치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예산과 노력이 소요되었을 것이라 볼 때 막대한 손해가 있었다 할 것이며, 또한 인문계로 전환할 때 동양공업고등학교의 선배와 동문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과생되는 문제가 예상되며 특히, 강서구청의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학교시설 사업승인이 지연된다면 그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예상된다 할 것입니다.</p> <p>○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들로 보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의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</p> <p>(檢討報告書 一部內容 收錄省略)</p> <p>.....</p> <p>이상으로 동양공업고등학교 이전계획 철회 및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</p> <p>감사합니다.</p> <p>○委員長 劉大運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.</p> <p>동양학원이 제출한 동양공업고등학교 이전승인의 조속한 이행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5월 6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. 따라서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. 필요하다면 추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, 내용은 방금 들으신 검토보고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지금까지 두 분 紹介議員님의 취지설명과 양 請願人 대표의 의견청취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.</p> <p>따라서 양 청원의 대립이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아마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으리라고 보여집니다.</p> <p>그래서 양 청원은 청원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, 이의 없으십니까?</p> <p>(「委員長님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洪樂元委員님 말씀하십시오.</p> <p>○洪樂元委員 지금 어느쪽도 잘못된 경우가 아니고 심히 결정을 내리기가 매우 난감한</p>
---	--